

# 공무 국외 출장보고서

2018.09.

- 출장기관 :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, 제남시 등 4개 기관
- 출장일시 : 2018년 8월 28일 ~ 8월 31일(3박4일)
- 출 장 자 : 미래전략연구단 홍원표 박사, 송영현 박사, 강수현 연구원
- 주요내용 : ① 산둥지역 지자체의 환황해 교류협력에 대한 인식 조사  
② 충남도 환황해지역 파트너 대상 물색  
③ 한중 초국경 연결망 구축에 대한 인식 조사

충남연구원

# 공무 국외 출장보고서

## 1. 공무국외 여행 개요

- 기 간: 2018년 8월 28일(수) ~ 8월 31일(토), 3박4일
- 여행자: 미래전략연구단 홍원표 박사, 송영현 박사, 강수현 연구원
- 여행국: 중국 (산둥성 웨이하이시, 제남시)
- 방문기관: 산둥성사회과학원, 산둥성사회과학원 환황해발전연구센터, 산둥성 교통과학연구원, 웨이하이지방협력자유무역시범구
- 주요 일정:

일자	시간	주요일정	내용
8월28일(화) (웨이하이)	14:10-14:25	· 이동(인천→웨이하이, KE839)	
8월29일(수) (지난)	10:00-14:00 15:00-20:00	· 웨이하이 한중지방협력자유무역시범구 방문 · 이동(웨이하이 → 지난 )	· 웨이하이시 환황해권 협력 상황 파악 · FTA시범지구의 사업가능성 모색
8월30일(목) (지난)	10:00-14:00 15:00-17:00	· 산둥성사회과학원 방문 · 산둥성사회과학원 환황해발전 연구센터장 인터뷰	· 현지 파트너 역할 가능성 모색 · 국제교류 현황 파악 및 환황해 교류협력 인식 조사 · 환황해포럼 초청 건
8월31일(금)	10:00-12:00 15:05-17:50	· 산둥성교통과학연구원 방문 · 이동(지난→인천, KE848)	· 한중 초국경 연결망 구축 가능성 모색(해저터널, 열차페리 등)

## 2. 주요 활동내역

- 산둥성 정부의 지방차원 교류협력에 관한 및 관심사항 파악
- 본 연구 핵심사업에 대한 의향 타진 및 사업추진 창구 마련
-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시범구와의 협력 가능성 모색
- 올해 『환황해포럼』 초청 관련 사전 협의
- 한중 초국경 연결망 구축 가능성 모색과 지방정부의 역할 논의

## 1) 산동성 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협력·협조 판공실 출장 결과

### ○ 면담자

성명	소속	직급	연락처
Diao Ruifu	웨이하이 중한FTA지방경제협력·협조 판공실	부국장	+86-631-5897319 ruifudiao@126.com
Xia zhicheng	웨이하이 중한FTA지방경제협력 촉진센터 프로젝트촉진부	부장	+86-631-5277209 kfq5897808@163.com
Jin zhehong	웨이하이시투자촉진센터 한국부	부장	+86-631-5200709 1906609904@qq.com

### ○ 웨이하이시와 한국의 경제협력 현황

- 웨이하이시는 2015년 체결된 한중 FTA 협정 제17장에 의거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선정
- 한국과의 협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매우 큰 지역으로,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시의 주요발전전략으로 삼음
- 90년대 인천과 통항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 현재 시 전체 무역액의 60%, 외자의 80%가 한국으로부터 발생
- 2018년 현재 800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웨이하이에 입지하고 있으며 투자가 가장 왕성했던 2010년 이전에는 3,000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입지
- 인천과의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묶인 만큼, 10여 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협력정책 추진 중이며 중국 상무부,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도 구성원으로 참여 중

### ○ 자유무역시험구, 한중산업단지 등과의 차별성 및 주요정책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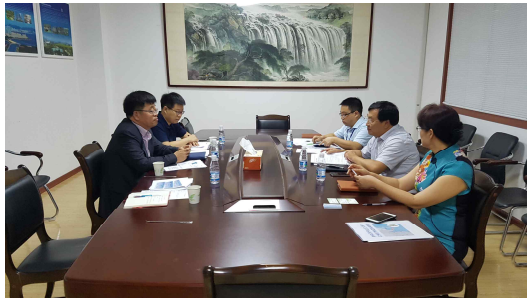
- 현재 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무역시험구, 한중 FTA에서 제시된 또 하나의 한중협력기체인 한중산업단지에 비해 협력내용이 보다 포괄적이라는 장점 존재
  - ※ 웨이하이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무역, 전자상거래, 투자, 산업, 금융, 과학기술, 관광, 문화, 체육, 의료, 위생 등 분야의 협력을 추진 중
- 그러나 중국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정책지원을 받고 있는 자유무역시험구에 비해

- 웨이하이시가 한중 FTA와 관련하여 받고 있는 특별한 지원은 많지 않은 상황
- 2015-18년까지 시 차원에서 매년 한중 지방경제협력과 관련된 시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한 편
- 한국 입장에서 볼 때 산둥성 내 칭다오시, 옌타이시 항구보다 운송비가 저렴하다는 점, 통관속도가 약간 빠르다는 점 등 장점 있으나 웨이하이시만의 특별한 장점은 없는 상황
- 전반적으로 볼 때, 웨이하이시와 인천시 간 실체화된 경제협력은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

## ○ 한중 지방정부간 경제협력 방향 및 향후 비전

- 전자상거래, 서비스 무역 분야 위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관련 플랫폼 건설을 위해 노력 중
- 웨이하이시는 중국 내 서비스무역 시범도시로 선정된 바 있으며 3차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노력 중. 이에 따라 상기 2개 분야를 대외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시도
- 실제 한국과의 전자상거래 무역액 증가하는 추세이나 대부분 웨이하이시의 수출액이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적은 편
- 한중 FTA 협정에 근거한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에 있어 웨이하이시는 인천과의 협력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 방향이 크게 바뀌지는 않은 예정
- 충남과 웨이하이시의 경우, 제도적 여건으로 인해 한중 FTA 협정에 근거한 경제협력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
- 단, 스마트팜, 농업관광 등 현대화된 농업 분야, 각종 해양분야의 협력 의지는 상당히 높은 편
- 웨이하이시는 전체 인구 중 농업인구 비중이 30% 이상으로 해외 농업발전 모델에 대한 관심 높은 편이며, 경제의 대외의존도 높은 연해지역인 만큼 해양산업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의지 높은 편
- 한편,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웨이하이시는 한중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4-5가지의 미래 발전방향을 고민 중
- 인천, 웨이하이, 후쿠오카를 연결하는 한·중·일 지방정부 협력체계 구축, 서비스 무역을 위한 상호 도시 주민 간 비자면제 등 제도 시행, 환황해 해양도시 연맹 구

축, 통관 속도 증대 방안 마련 등이 주 내용임



[사진] 웨이하이중한FTA지방경제협력 사무국



[사진] 웨이하이중한FTA지방경제협력 사무국

## 2) 산둥성 사회과학원 출장 결과

### ○ 면담자

성명	소속	직급	연락처
Li Guangjie	산둥사회과학원 국제경제연구소	소장	+86-0531-82704726 liquangjie68@163.com
Piao WenJin	산둥사회과학원 환황해연구센터	주임	+86-532-5861-5780 mjpark@sina.com
Chen Xiaoqian	산둥사회과학원 국제경제연구소	연구원	+86-531-82704594 icecream51@naver.com
Guan Dianan	산둥성사회과학원 외사관공실	주임	+86-1520002158 cnsdws@163.com

### ○ 산둥성 환황해 교류협력 현황

- 환황해에 대한 인식은 8, 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은 논의 진행
-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환황해에 대한 논의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진행 중→그러나 환황해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 및 범위 확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
- 환황해라는 어휘의 활용에 대해 반감 없으며 오히려 국제화된 이미지를 주는 단어라는 점에 공감→유사 어휘로 환발해라는 단어가 있으나 이는 중국 국내 연해지역을 지칭한다는 인식 강함
- 한편, 산둥성은 환황해권 지방정부들과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 진행 중이나 세부적

인 사업 내용은 연구원인 산둥성 사회과학원 차원에서 파악하기에 한계

→ 단, 산둥성 정부 산하기관인 만큼, 향후 산둥성 정부 외사판공실과의 연계에 적극 협조할 예정

- 일대일로 정책을 한국까지 확장하기 위한 근거지로 산둥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 있으며 여전히 한국이 산둥의 가장 중요한 무역·투자 대상국이라는 인식 강한 편
- 2,3년 전부터 성 정부 산하에 환황해전략연구원 만든다는 계획 알려진 바 있으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

## ○ 산둥성의 환황해 교류협력 관심사항

- 산둥성은 해양산업 GDP가 성 전체 GDP의 20%를 차지하며 과학기술 역량의 1/3이 해양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, 해양 관련 사항에 대한 교류협력 의지 강한 편
- 현재 산둥성 사회과학원,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연구기관 간 협력 잘 이뤄지고 있으며 2017년 11월 황해(중국 측 동중국해) 연구기관 간 연맹을 만들고 운영 중
- 한·중, 한·중·일 국제창업에 대한 관심 높은 편이며 청년 뿐 아니라 고령자 간의 창업활동에도 관심
- 단, 국제 창업 관련하여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나 산둥성 내 산업원구, 보세가공구, 종합보세구 등에 기 구축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
- 생태보상, 해안선 회복 등 해양환경 관련 문제 등에 대한 협력도 관심 있으나 민감한 문제보다는 정책적 차원의 협력에 보다 관심 있는 편

※생태보상 : 생태 및 환경보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지역 또는 주민에 대한 보상

## ○ 환황해발전연구센터 현황 및 발전계획, 충남과의 협력가능 분야

- 환황해발전연구센터는 2017년 6월 창립되었으며 산둥성 사회과학원 해양경제문화연구원 산하 기관으로 설립
- 한국, 캐나다, 일본 출신 연구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
- 단, 2017년 황해 연구기관 간 연맹 구축을 주도 하였으며 2달에 한 번씩 간행물을 출간할 예정
- 충남, 또는 충남연구원과 환황해 관련 협력 가능하나 상대방에 대한 정보 부족한

만큼, 상호 이해를 위한 기초 연구사업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



[사진] 산둥성사회과학원 회의장면



[사진] 산둥성사회과학원 회의장면

### 3) 산둥성 교통과학연구원 출장결과

#### ○ 면담자

성명	소속	직급	연락처
Lin Wang	산둥성교통과학연구원	원장	+86-531-85903839 sddot@163.com
Guo Lin	산둥성교통과학연구원 종합교통발전연구실	주임	+86-531-85693533 15863776633@163.com
Hu zongwen	산둥성교통과학연구원 교통빅데이터 연구센터	주임	+86-531-85903926 89472732@qq.com

#### ○ 초국경교통망 관련 중국측 동향

- 한중 초국경교통망과 관련하여 논의는 있었으나 한중 지방정부 간의 별도의 공동 연구는 없었음→단, 국제 교통세미나, 한국 측 연구관련 자문에는 비교적 활발히 참여
- 특히 2016년 경기도 평택항과 산둥성 옌타이항 간의 열차페리 연결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비교적 깊게 이해
- 한편, 중국 내에서도 민간항공기 운항에 대한 관심 증가하고 있으며 산둥성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→그러나 국경 간 민간항공기 운항에 대해서는 외교, 국방 등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 미비
- 또한 여객 크루즈에 대한 수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

## ○ 한중해저터널 관련 논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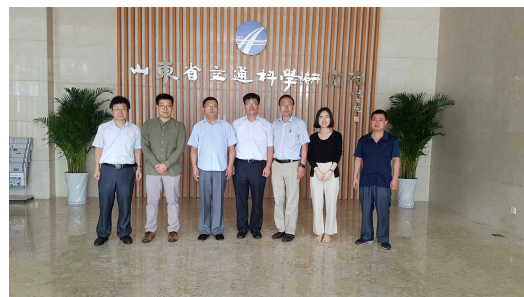
- 한중 물류량, 여객량이 점차 감소 또는 더딘 증가세 보이고 있으며 양국 간 정책, 기술, 터널 관련 표준 차이가 크다는 점, 기존 해상운수체계의 진전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한중 해저터널의 성공 가능성 다소 낮다고 설명
- 다롄과 옌타이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서도 2010년 국무원 비준 이뤄졌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진전 없는 상황
- 르자오, 옌타이, 칭다오 등 산둥성 주요 항구들은 이미 관련 시설을 완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해저터널 보다는 열차페리에 대한 관심 높음
- 남북한 관계가 진전되고 정치적 불안정성 문제가 해소될 경우 산둥성 입장에서 훨씬 더 넓은 배후시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중해저터널에 대한 관심 높아질 것으로 예상

## ○ 협력사업 발굴

- 한중해저터널, 한중열차페리 등에 대한 산둥성교통과학원과 충남연구원의 기초 협력연구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며, 한중 양측에서 정밀한 여건분석, 미래 시나리오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라 언급
- 양질의 연구결과 도출 시, 산둥성 정부 산하기관인 교통과학연구원 측에서 성정부에 정책제안 가능



[사진] 산둥성교통과학연구원 회의장면



[사진] 산둥성교통과학연구원



#### 4) 시사점

##### ○ 산둥성의 경우 환황해권 소속이라는 인식도 높은 편으로 향후 충남의 환황해 이니셔티브 사업 관련한 주요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상

- 환황해라는 어휘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강하며, 환황해권 타 지역과의 대외협력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중요시
- 중국 내 타 발달지역과 달리, 국가나 인근 경제발전 지역으로부터의 경제적 스펀오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지역 특성 강하게 반영→대외경제에 대한 의존도 심화
- 성 정부 차원에서 환황해 관련 기구 마련에 대한 의지 있는 편 : 환황해발전연구센터 설립하였으며 환황해전략연구원 설립 검토 중

##### ○ 한중 초국경교통연결망에 대한 기초 공동연구 필요

- 한중해저터널, 열차페리, 여객 크루즈 등 다양한 형태의 초국경 교통연결망 구축 가능성에 대한 충남-산둥 간 공동연구 필요
- 정확한 여건분석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형태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타진하기 보다는,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 대한 기초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. 파트너 지역 소속 연구기관인 산둥성 교통과학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

##### ○ 해양, 농업, 환경 등에 대한 충남-산둥성 간 정책교류 강화

- 다양한 해양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, 해양과 관련된 전방위적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러한 기회 활용 필요
- 산둥성 웨이하이시의 경우 현대화된 농업에 대한 관심 많으므로 지역농업발전과 관련하여 충남의 우수정책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 많을 것으로 예상
- 산둥성 측은 환경분야 협력의 경우 해양쓰레기, 미세먼지 등의 책임소재와 관련한 문제보다는, 서로의 우수정책 사례를 교환하는 형태의 교류를 희망
- 따라서 기존에 비해 심화된 형태의 정책교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

##### ○ 환황해발전연구센터를 주요 파트너 기관으로 활용

-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 기능과 인력 수준이 충분치 않으나, 한국에 대한 이해도 높은 센터장이 향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코자 기획 중

- 현재 국내에서 지방차원의 파트너 기관을 마련하지 못한 만큼, 충남도 또는 충남연구원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협력의사 타진할 필요

#### ○ 기 구축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창업 사업 실시

- 충남이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으나, 아직 활용도가 낮은 한중산업단지, 종합보세구 등 기 구축된 플랫폼은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
- 사드갈등 해빙 무드가 강화됨에 따라 한중산업단지 활용에 대한 양국의 관심 고조되고 있는 바, 한중산업단지의 적극적 활용방안 검토 필요